최악 경제난…내몰리는 극빈층

<1> 달동네 서민들 겨울나기 두렵다

'제2의 IMF사태'에 대한 우려가 높아가고 있다. 주가 대폭락과 환율 급등으로 촉발된 금융위기가 경제난으로 이어지면서 서민들의 삶을 옥죄고 있다. 특히 극빈층 서민들의 삶은 더욱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경제난 속에 타들어가는 서민들의 어려운 삶의 현장을 살펴본다.

한달 30만원 벌이에 빚은 쌓여만 가고

쪽방서도 내쫓길까 한숨만

가을바람이 제법 쌀쌀한 26일 오후. 광주시 서구 양3동 일명 '달동네'에서 살고 있는 양모(64)씨의 손놀림이 분주했다. 오전 내내 동네를 돌며 수집해 온 폐지를 마당 한구석에서 정리작업을 벌이던 양씨는 이내 한숨을 내쉬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코앞에 다가온 겨울나기에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강한 바람 탓에 '창호지'로 만든 방문은 쉴새없이 '덜컥덜컥' 거리고 있어 겨울 찬바람을 어떻게 막아낼지 가슴만 답답할 뿐이었다.

"한 달 내내 폐지를 모아 팔면 7만원 정도 벌 수 있어요. 몸이 불편해 일을 할 수 없지만, 이거라도 벌어야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죠."

양씨의 한 달 가정 수입은 아내가 튀김 장사로 벌어온 15만원 남짓과 폐지수집으로 버는 7만원, 시집간 딸이 보내오는 용돈 등을 합하면 겨우 30만원 정도다. 하지만, 매월 ▲전기요금 4만1천원 ▲수도요금 1만5천원 ▲전화요금 2만원 ▲건강보험료 1만8천원 등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내고 나면 생활비는 고작 20여 만원밖에 남지 않는다.

최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 때문에 남은 생활비 20여만원은 꼭 필요한 생필품 몇 가지를 구입하게 되면 바닥이 나고 만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 집을 담보로 아들이 개업한 '소주방'은 빚만 지고 문을 닫았으며, 4천만원의 은행 빚을 짊어지게 된 가족들은 언제 집에서 내쫓길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다. 양씨의 집안 형편이 이러해도 정부 보조금은 꿈도 꿀 수 없다.

아들과 딸이 있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선정되기 힘들고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 기초노령연금 대상도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양씨는 "지난해 10만원 상당의 기름을 구입했지만 아까워서 쓰지도 못하고 남았는데 당분간 이걸로 버틸 계획"이라며 "가족을 제대로 부양하지 못하고 있어 밥도 잘 넘어가지 않는다"고 눈물을 훔쳤다.

같은 날 오후 광주시 남구의 '달동네'라 불리는 월산3동에서 6년째 살고 있는 주부 임모(여·45)씨는 어제 구입한 연탄을 정리하고 있었다.

> 연탄 보일러로 바꿔
> 아끼고 또 아껴써도
> 형편은 더 나빠지고
> 벼랑끝 삶 지긋지긋

비싼 기름값을 견디다 못해 연탄 보일러로 바꾼 지 3년째지만 연탄 구입은 여전히 힘들다. 높고 비좁은 달동네여서 연탄을 배달해주지 않기 때문에 직접 공장에 가서 연탄을 구입한 뒤 남편(46)과 함께 날라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연탄값도 올랐다. 지난해 한 장당 310원이던 가격이 올해는 25% 오른 390원이었으며, 배달을 해주면 한 장당 70원이 추가된다. 임씨 집까지 배달을 해주더라도 배송료를 아끼기 위해 직접 나를 터였다.

임씨 가족들도 올 겨울나기가 걱정이다. 7년 전 남편이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이 급한 대로 생계를 위해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아직도 한 달에 100만원씩 갚고 있다. 월 10만원의 사글세와 딸(17)의 고등학교 학비와 문제집 등 교육비 20만원, 전기요금과 전화요금 등을 제하면 남는 돈은 거의 없다.

26일 오후 광주시 남구 월산3동 달동네 주민들이 가파른 계단을 힘겹게 내려오고 있다. 달동네의 열악한 환경이 주민들의 고달픈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임씨는 "남편이 임금을 받지 못해 빌렸던 은행 빚 일부를 갚아 신용을 회복하려고 했지만 쉽게 살아나지 않더라"며 "카드를 사용할 수 없어 또 다시 돈을 빌려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어 도무지 희망이 보이질 않는다"고 토로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경제난 속 절도 급증

광주 12.6%·전남 20% 늘어

경기 침체의 여파로 광주·전남지역의 절도 범죄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찰청이 펴낸 '2008 경찰백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은 1만720건으로 2006년 9천516건에 12.6% 증가했다. 광주지역 절도사건은 지난해 처음으로 1만건을 넘어선 것이다. 올해도 8월 말 현재 6천746건의 절도 사건이 발생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남지역의 경우도 지난해 8천58건의 절도사건이 발생, 2006년 6천687건에 비해 20% 늘었으며, 올해 8월까지는 5천730건이 발생했다.

한편, 작년 한 해 동안 광주와 전남을 비롯한 전국에서 발생한 절도 범죄는 모두 21만2천458건이었다. 절도 범죄는 ▲2004년 15만5천311건 ▲2005년 18만8천780건 ▲2006년 19만2천670건 등으로 꾸준히 늘어 작년에는 21만건을 돌파했다.

작년 전체 범죄는 전년 대비 6.8% 증가한 183만6천496건이 발생했는데, 이 중 5대 범죄인 절도는 작년보다 10.3% 늘었고, 살인은 3.5%, 폭력은 4.7% 증가했지만 강간과 강도는 각각 0.3%, 8.2% 감소했다.

/최권일기자 cki@·연합뉴스

광주서 주가 폭락 비관 자살

부산에선 60대 부부 동반자살 기도

증시 폭락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40대 개미 투자자(개인 투자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주가 폭락에 따른 후유증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5일 밤 9시10분께 광주시 북구 A(47)씨 집 화장실에서 A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부인(46)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수년 전 종신보험과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3억7천만원 상당을 주식에 투자했지만, 최근 주가 폭락으로 투자 원금의 60~70% 가량의 손실을 입어 이를 비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근 주가가 바닥을 모른 채 폭락하자 식음을 전폐하고 매일 술을 마셔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숨진 A씨가 최근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죽고 싶다'"라는 등의 말을 자주 해왔다는 가족들의 말에 따라 주식 투자 손실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후 3시께 부산에서는 김모(66)씨 부부가 주식 투자에 따른 손실을 비관해 동반 자살을 하려다 경찰에 발견돼 가족에게 인계됐다.

김씨 부부는 5년 전 3천여만원으로 주식투자를 해오다 증시가 활황을 보이던 지난해 10월께 증권사로부터 1억원을 추가 대출받아 모두 1억3천만원의 자금으로 주식투자를 하던 중 최근 주가가 크게 폭락하면서 투자액의 대부분을 손해보자 이를 비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행기자 golee@

김민석 최고위원 소환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갑근 부장검사)는 25일 오후 김 최고위원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김 최고위원이 올해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업인 2~3명으로부터 수억원 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김 최고위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한 뒤 돈을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인을 소환조사하고 관련 계좌를 추적해왔다. /연합뉴스

축산폐수 버린 양돈업자 형사처벌에 배상까지

축산폐수를 지하수로 무단 방류해 인근 농가의 돼지들을 집단 폐사하게 한 양돈업자가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물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3부(부장판사 문준필)는 26일 양돈업자 A(50)씨가 인근의 다른 양돈업자 B(60)씨 부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 등은 A씨에게 4천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 부자가 버린 축산폐수로 A씨가 기르는 돼지들이 집단 폐사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최권일기자 cki@

길 잃은 애완견 데려 갔다 절도죄

쌍나팔

○…50대 고물상 업주가 길거리를 돌아다니던 요크셔테리어 한 마리를 떠돌이 애완견으로 착각해 데리고 갔다가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서행.

○…광주동부경찰은 26일 골목길을 돌아다니던 애완견을 자신의 가방에 담아간 B(57·광주시 동구)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2일 오전 10시께 광주시 동구 지산동 골목길에서 P(21)씨 소유의 2년생 요크셔테리어 애완견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사흘 동안 길렀다는 것.

○…개 주인 P씨는 경찰조사에서 "잃어버렸던 애완견은 혈통이 좋아 수백만원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B씨는 "개가 집을 찾지 못해 헤매던 것을 보고 버려진 개로 오해했다"며 선처를 호소.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